▌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2008.06.30) : 261 294

브라질의 언어현실과 언어·사회적 편견에 관한 연구*

임 두 빈**
Im, Doo-Bin

<Abstract>

A Realidade Lingüística do Brasil e o Preconceito Lingüístico e Social

O objetivo deste trabalho é pesquisar a realidade lingüística no Brasil, relacionando a heterogeneidade lingüística com a heterogeneidade social desse país. Em noções muito gerais, bem se sabe que a relação entre língua e sociedade é absolutamente indissociável, uma influenciando a outra. Não é possível estudar a sociedade sem levar em conta as relações que os indivíduos e grupos estabelecem entre si por meio da linguagem. Portugal trouxe a língua portuguesa ao Brasil, mas a realidade lingüística do Brasil se historicizou de maneira diferente, incorporando imagens que se tornaram constitutivas da identidade brasileira. Neste trabalho refletimos sobre alguns fatos que se incorporaram à história da língua portuguesa no Brasil. Questionando a ilusão sobre uma língua homogênea, para alcançar o objetivo da nossa pesquisa,

* 본 논문은 2008년 5월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 포르투갈-브라질 학회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발표 당시 유익한 지적을 해준 선생님들과 논문의 의미와 가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해 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전임연구원, E-mail: brasil@korea.com

focalizamo-nos nos três pontos a seguir: (i) o processo histórico da unificação da língua portuguesa; (ii) as recentes políticas e iniciativas oficiais sobre a língua portuguesa no Brasil; (iii) o preconceito lingüístico e social criado na sociedade brasileira.

[Key Words: Português Brasileiro/ Política da Língua/ Preconceito Lingüístico/ Linguicismo/ Realidade Lingüística/ Variante Lingüística]

[: / / / / /]

Ⅰ. 들어가기

'한 개 국가에 하나의 국어'라는 슬로건이 모든 민족국가들의 목표이고 이상이라 할지라도 한 국가를 구성하는 인종이나 민족의 분포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러 인종으로 섞여 있다 해도 언어가 단일한 국가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한 국가 안에 각각의 인종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현실이라면 무슨 기준으로 한 국가의 국어(língua nacional)또는 공용어(língua oficial)로 정할 것인가[1]의 문제는 복잡해진다. 브라질의 언어현실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단일언어 사용 국가는 아니지만 인구비율의 90%이상이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로 분류된다(Rustow1967).광활한 영토아래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교육을 받은 브라질의 대다수 국민은 물론, 외부인들조차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단일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로

1) 명칭의 구분에 있어 '국어'는 개념의 의미로, '공용어'는 수단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알고 있고 언어 문제에 한해서 별다른 분쟁의 소지가 없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브라질의 언어현실에 대한 이러한 내·외적인 시각은 브라질 영토 내 어느 곳에서든 간에 포르투갈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 이중 또는 다중 언어세계의 사용 현황이 뚜렷하거나 실제로 이중 언어나 다중언어 사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브라질은 역시 단일 언어 사용국가라는 점에 이견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브라질 언중들은 인구의 대부분이 포르투갈어를 말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2언어를 배운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브라질이 단일 언어 사용국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관점, 즉 언어의 다양성과 복수성을 인정하는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확한 것은 아니다. 브라질 대부분의 국민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실제 브라질에 사용되는 언어가 포르투갈어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언어는 단순한 현실의 반영체이거나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집단의 정체성과 사회적 통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특히 브라질과 같이 국가형성 초기부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이종혼형적인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공용어의 지정과 사용은 국가발전이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그 반면에 극히 일부고등교육을 받은 소수 계층이 동일한 국어사용 안에서도 언어적 편견을 이용한 '구별 짓기'를 통해 주요한 정책이나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민초들을 배제시키고 주변부로 밀어내는 '국가내부에 존재하는 제국주의'적인 모

2) 언어를 단순히 현실의 반영체로 보거나 도구로 보는 반영설 혹은 언어도구설은 복거일과 같은 영어공용화론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언어라도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시각을 배경으로 하며 '언어의 사회 실천적 역할'을 축소시킨다.

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권력화와 배제의 과정이 외세에 의한 식민지배에서 내부의 식민지배로 전이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브라질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위시로 한 유럽의 식민지배 이후 근대적 개념의 국경이 형성되면서 국가형성과정에서 여러 층위로 나누어진 인종과 혼혈문화를 융화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단일 언어정책을 펴왔다.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엘리트들의 기본 목표는 단일한 정치체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정체성, 교육체계나 생활방식 같은 사회적인 통합을 실현하는데 있다. 실제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체성의 많은 부분은 언어에 반영되고 언어는 그 사회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유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지게 된다. 한국이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동질화된 언어와 민족이라는 전제요소를 지녔던 반면에, 브라질은 외부의 압력을 통해 태생적으로 안게 된 이종혼형성(heterogeneidade)적인 요소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 다양성(diversidade)을 둘이 벌이는 원심력이 우월한 사회이므로, 브라질이 언어의 근대화를 통해 구축한 단일 국민언어를 구심력의 축으로 삼아 국가 통합(unidade)과 민족정체성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브라질 사회의 정체성 형성과 그 지속을 논할 때 있어 '언어'가 지니는 무게감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어 문제는 단순히 언어학의 연구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과학의 연구대상도 되어야 한다고 본다.[3]

3) 사회언어학적 연구방법은 이미 정의된 사회학적 개념을 '언어'의 연구에 대입시키는데 그치는 경향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방향지우기가 숨겨져 있으므로 상관성의 연구보다 제 제도와 사회적 실천에 따른 언어규범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문제, 어떻게 해서 개개인이 규범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저항하는지 이들 규범과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고 카메론(Cameron1990)은 주

본 연구는 언어라는 것이 '단순한 도구'가 아닌 '사회 실천적인 기제'라는 관점을 통해 국가정체성 형성에 있어 브라질이 거쳐 온 언어통합의 역사적 과정과 최근에 수립된 공식적인 언어정책시안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 다음 다언어적 환경에서 단일언어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언어선택과 사회적 정체성간의 관계에서 형성된 언어·사회적인 편견과 그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는 '차이 지우기'와 '구별 짓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를 기반으로 발견되는 언어수준에서 발현되고 실천되는 사회 조건들의 흔적들을 통해 브라질 사회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려 한다.

Ⅱ. 브라질 언어통합의 역사적 과정

식민시대 초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포르투갈어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포르투갈어는 단지 해안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상파울로(São Paulo)를 위시해서 '반데이란찌스'(Bandeirantes)의 오지개척활동의 결과로 확보된 개척지에서 사용되던 주된 언어는 투피(Tupi) 인디오어를 기반으로 한 '일반어'(língua geral)[4]였다. 이 언어는 원주민들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예수회 신부들을 중심으로 사용의 폭을 넓혀갔고 안쉬에따(Anchieta) 신부에 의해 1595년에 그 문법적인 체계가 기술되기까지

장하고 있다(1990). 이러한 시각은 부르디외(PierreBourdieu)의 '언어장' 개념과 그람시(AntonioGramsci)의 '언어헤게모니' 개념과 결부시켜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권력'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4) 'língua geral'에 대한 우리말 번역에 있어 "브라질의 언어정체성"(2005)에서 '공통어'로 번역해서 사용했으나 의미상 더 가까울 수 있는 '공통어' 혹은 '소통어'의 개념을 이미 'língua franca'가 선점한 측면이 있어 포-브 학회에서 논의한 바, 연구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일반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했다(임두빈 2006,54). 북동부지역에서는 포르투갈어와 더불어 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원주민부족 언어들과 노예제도에 항거한 흔적으로 남은 아프리카 언어들, 포르투갈어에서 파생된 크레올 변이형들이 사용되었다. 북부지방에서는 다른 종류의 원주민 부족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아마존 일반어', 일명 'Nheengatu('넹가뚜' 혹은 '이엥가뚜')라 불리는 형태의 소통어(língua franca)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 역시 브라질 원주민 언어들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으로 북부지역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Zilles 2002, 151-152).

브라질 식민시대 초기 언어정책은 기본적으로 '억압'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16세기 포르투갈에서 주앙 드 바호스(João de Barros)가 포르투갈 왕실에 식민지에 대한 언어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래, 1727년 주앙 6세가 북동부 마라냐웅(Maranhão)주에 소재한 예수회 총단에 원주민들이 포르투갈 왕실에 봉사할 수 있도록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라는 훈령을 내리게 되었다(Dias 1996, 11). 18세기 '골드러시'가 도래하면서 유럽인들의 관심이 브라질에 집중되고 예수회의 활동이 포르투갈 왕실의 이익에 반하는 상황아래에서 포르투갈은 가장 중요한 초기 언어정책으로 '퐁발 후작'이 1757년 5월3일에 예수회의 추방과 더불어 'Lei do Diretório'를 공표했다(Rodrigues 1983,34). 이 훈령은 포르투갈어를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로 정의하고 다른 언어들의 사용, 특히 널리 사용되던 '일반어'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강제적인 포르투갈어의 이식은 인구 분포상으로 가장 소수이면서 식민지 영토개발과 관리책임을 독점하는 백인계층들의 언어를 나머지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는 '한 특정 집단'이 사용하는 '하나의 특정 언어'가 전체 언어를 대표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다.

18세기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는 문어(língua escrita)의 유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장소, 즉 도시화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이미 지배어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1820년부터 시작되어 1888년 노예제 폐지라는 과정을 거쳐 농업부문에 저비용에 생산성이 더 높은 대체노동력의 조달 방편으로 유럽에서의 이민이 포괄적으로 이뤄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민자의 수가 급증했었다.[5] 오늘날 브라질에는 전 세계의 축소판 마냥 각지에서 들어온 이민자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페인, 레바논의 후손이 세운 공동체가 규모가 큰 편이며 최근에 유입된 이민 집단으로는 한국과 중국을 들 수 있다. 우리와 유사성이 가장 많다고 하는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상파울루(São Paulo)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일본밖에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장소로 익히 알려져 있다.[6] 브라질에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본계 브라질인들(dekasseguis)의 역이민 현상이 활기를 띠었으나 실제로 그들의 일본 적응은 아주 힘든 편이다. 노동환경의 차이뿐만 아니라 바로 언어 문제가 그 어려움의 중심에 있다. 일본어를 사용하되 그들이 알고 사용하는 일본어 자체가 일본사회와 언중을 벗어나 정체된 일본어를 구사함에 따라 그들이 구사하는 일본 방언이 일본인들이 느끼기에 고어체에다가 경어법도 무시되고 비문(非文)이 많아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언어학적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사용 주체에 따라 언어적 차별이 발생함은 물론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까지 생성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7] 1970년대 엄청난

5) 경제위기가 닥쳤던 20세기 말경에는 이민자의 수가 급감했다.
6) http://www.memorialdoimigrante.sp.gov.br/historico/index.htm
7) "진정한 이민자녀의 교육정책이 이민자의 후손이 제대로 형성된 민족관과 조국관으로 부모나 할아버지가 찾아온 머나먼 이민지이자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민사회와 조국에게 필요한 세련된 국제인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민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두 세 개 이상

국력신장으로 남미로 적극적인 진출을 한 일본인들과 기업들은 초창기에 현지에서 이민자들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기대감과 현실과의 어긋남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Hinata1995).현지에서 자라 각 분야로 진출한 일본인 2세 3세들은 겉모습 또한 분명히 일본인이고 기본적인 생활방식도 본토 일본인과 비슷했지만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브라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 일본인과의 언어와 사고방식의 소통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민족교육과 (이중)언어와 문화교육을 간과했던 그들의 이민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ibid.).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이민 역사가 짧지만 공통점을 지닌 우리로서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부터라도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해외동포들과의 실질적인 소통과 연대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경우를 보면, 이미 현지주민과 동화를 이뤄 3세대를 거치면서 차츰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남부지역, 특히 싼따까따리나(SantaCatarina주와 리오그란데두술(Rio Grandedo sul)주에서 소작농들을 중심으로 이룬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이민공동체촌의 형성은 이민지에서 독일어와 이탈리아어의 사용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이민자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역사적으로 브라질 언어통

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은 이민자녀에게 있어 축복이다.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도 불고 있는 이민자녀들의 한국유학열풍도 외국의 교포자녀도 교육이라는 사업아래에서 하나의 고객으로 인식되는 측면과 머나먼 이민지에서 구태여 한국식 교육방식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편협하고 옹졸한 사고에 분명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출처: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myoungsb&log_no=325)

합정책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그들은 제뚤리오 바르가스(Getúlio Vargas)의 신국가 체제(1937-1945)아래에서 직접적인 언어적, 문화적인 억압을 받았다. '언어범죄'(crime idiomático)라는 사법적 개념의 적용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Cagliari 2003, 13).

1941년에서 1945년 동안 바르가스의 신국가(Estado Novo) 체제 아래 브라질 정부는 독일과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의 학교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을 행사했다. 또한 이민자 공동체에서 독일어나 이탈리아어로 발행하는 지역 신문을 폐간시키기도 했다. 심지어는 순전히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 조차 이민자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박해하고 감금시키고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Oliveira 2002, 87-88)[8].

독립과 공화정 출범을 거치면서 포르투갈어를 중심으로 한 언어통합 과정은 점차 강화되어 갔다. 공식적으로 포르투갈어는 항상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언어로 간주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신문, 라디오, TV와 같은 미디어 매체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변두리지역까지 포르투갈어가 유일하게 지배어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규범에 기반한 문어(língua escrita)와 다른 환경을 배경으로 언중에 의해 발달하게 된 구어(língua falada)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어라는 한 자연언어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들의 정체성과 발화의 맥락을 반영하는 언어 변이체들이 발휘하는 '원심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8) 소수민족언어의 억제와 금지를 벌이는 주요 국가는 알제리, 시리아, 터키, 그리스, 라트비아 등이 있다. 그중 34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터키의 경우 공용어는 터키어뿐이다. 주요 소수민족으로 쿠르드족에게는 상당한 배타적인 정책을 쓴다. 헌법에서는 쿠르드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지는 않지만 공공장소에서 쿠르족 민족의식을 드러내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면 검열, 박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 1991년까지는 쿠르드어의 사적인 사용도 금지했다고 한다 (변명섭 2003, 220).

기호 체계가 지향하는 '구심력'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은 오늘날 브라질의 언어현실에서 '옳은 포르투갈어'와 '틀린 포르투갈어'를 대변하는 이분법적인 언어적 편견과 언어차별을 낳게 되었다.

Ⅲ. 브라질의 언어현실과 언어차별(linguicismo)의 재생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영토 안에서 말해지는 구어의 수는 약 2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170여개는 인디오의 언어이고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정착민들의 언어들이다. 이 언어들이 화석화된 자료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브라질 안에서 화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브라질은 명백히 다언어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언어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9] 브라질 정부의 소수민족 언어정책은 배타적이고 공식적으로 단일 언어 정책을 지향하지만 제한적으로 다언어 사용 국가에 속한다. 하지만 배제된 그 언어들은 바로 원주민이나 이민자 언어와 같이 해당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위가 미약한 소수집단 언어들이다. 게다가 이들 언어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도 그 존재들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전달 매개체의 표준화를 지향하는 미디어의 속성상 대부분의 청중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방송국 프로그램의 매개체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점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내세운 그러한 선택은 분명히 브라질에 실재하는 비 포르투갈어 사용자들의 존재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는 효

9) 이 부분에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개념상 'multilinguism'를 사용되는 언어들의 힘과 기능이 엇비슷할 때 사용되는 반면에 힘과 기능에 차이가 날 경우 위계를 나타내는 'poliglotismo'으로 구분한다(고종석 2007을 참고).

과를 생산해 낸다. 그러한 선택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이유를 수반한다.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미디어들은 언제나 브라질이 동질성이 강한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대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리고 이 '단일성'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차이를 은폐하고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10]

브라질에 존재하는 다언어적 현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올리베이라(Oliveira2002,83)는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는 무지(ignorância),둘째는 단일 언어 국가라는 통치이데올로기와 관련 언어정책,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적 편견이다. 이 중 첫 번째 이유에는 의도성이 없어 보이지만 두 번째 원인은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임을 보여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르투갈어가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당연함이 브라질의 소수언어와 소수언어 사용자들에게는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간과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본고에서 논해야 할 중심된 쟁점으로 접근해 가면서, 브라질 내 존재하는 소수언어들이 처해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상기에 전술한 올리베이라가 제시한 세 가지 원인들을 통해 브라질 포르투갈어라는 단일 언어체계이지만 다성성(多聲性, polifonia)을 띠고 있는 변이체들을 담고 있는 언어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다. 한 국가의 국어로써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가 아주 동질적인 것(unidade)으로 당연시하는 믿음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첫째,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의 변이형들 간 의사소통문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사안이 없다는 사실, 둘째 그러한 변이형들 간에 음성학적, 형태론적, 통

10) 최근 브라질 학계에서 이처럼 감춰진 브라질의 '다른 목소리들'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편이다. 필자가 필진으로 참여한 http://www.labeurb.unicamp.br/elb/ 참조.

사론적으로 언어내적 구조를 바꿀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한 집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전적으로 화자들에 있어 동질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러한 믿음과 달리, 브라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지니고 있는 표상과 실제 현실은 부합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다른 고대문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을 통해 구대륙의 언어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장구한 세월동안 지리적, 사회적 고립을 통해 유럽 포르투갈어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형태가 출현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역사언어학적인 사실과 함께 브라질 전역에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면서 결정적으로 브라질을 '하나의 언어공동체'로써 결속시키는데 있어 '글로브 TV'(TV Globo)[11]라는 미디어가 미치는 막강한 사회언어학적 영향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미디어 매체처럼 '글로브 TV'도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일종의 표준화된 방송언어(기기의 발달로 인해 캡션기능으로 송출되는 자막까지 포함)를 각자 지역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지닌 브라질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노출시키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비록 어떤 말이 표준 브라질 포르투갈어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시청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개인들은 주요 방송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송언어를 표준어로 받아들이기 쉽다. 모국어 화자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브 TV의 간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저녁 뉴스 'Jornal Nacional'의 앵커인 'William Bonner'와 'FátimaBernandes'는 저온 살균된 것 같은 느낌의 포르투갈어

11) TV Globo는 1965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설립되어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규모와 일일 시청자의 수가 8천만 명에 달하는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를 사용한다고 한다(Cagliari2003, 5). 이를테면, 브라질을 대표하는 두 가지 주요 지역인 상파울루(SãoPaulo)와 리오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의 도시 방언을 중화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의 언어를 방송 언어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식으로 두 대도시의 방언이 섞여 혼합된 느낌을 주는 방송어는 '표준 브라질 포르투갈어'라는 비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다른 지방색을 드러내는 변이형들의 우위에 서서 그 자체로 식자층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일종의 '명품언어'(고종석 2007 참조)인 셈이다. 하지만 TV 뉴스라는 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표준 브라질 포르투갈어는 자연스런 일상 언어의 일종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인위적으로 생성된 변이형이며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브라질처럼 광활한 대지에서 나타나는 이종혼형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실제의 언어현실을 자연스럽게 은폐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글로브' 방송 프로그램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공식적인 뉴스 방송'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브'식 표준어가 아닌 변이형들(variantes)이 사용되기도 한다. '부차적인 정도' 수준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그다지 낙후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변이형이 동원되기도 한다. 북동부지역 같이 아주 낙후된 지역의 사투리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천재지변이나 폭력사건의 피해자 또는 범행의 가해자의 모습을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주로 정권 교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짙은데 경상도 출신 정당의 집권 시 TV 방송에서 등장하는 가정부, 운전사, 폭력배들은 어김없이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2] 또 다른 예로, 국내 최고의 의사이지만 심한 사투리

12) 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8/05/02100500020080501070800 4.html 권력의 표준어 경상도말: "익숙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자연스럽게 배

로 쓰는 경우와 돌팔이일지라도 세련된 표준어를 사용하는 의사의 경우, 환자는 과연 누구를 더 신뢰할까? 부르디외(Bourdieu)는 이처럼 언어적 자산을 소유해서 특정한 언어적 잉여가치를 추출해 내는 힘이 바로 상징적 자본의 권력 형태임을 지적했었다(이동연 1997, 322).

글로브 방송에서도 흥미로운 점은 뉴스 방송시간이 아닌 텔레노벨라(telenovela)[13]에서 특정지방출신의 배우를 기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 사투리의 악센트만 지나치게 과장해서 흉내 내는 인물을 등장시킨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역시 한국 방송에서도 나타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화자들의 언어사용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TV라는 '일방향적'(unilateral)인 미디어 매체에 의해 수립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반증이기도 하다.

동일성과 하나의 통합언어를 추구하는 시각은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와 더불어 쓰이고 있는 다른 언어들의 존재와 언중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변이형들이 브라질 포르투갈어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마치 표준어가 사투리들을 통합시키고 억압하듯이, 지배적인 규칙은 그렇지 못한 언어게임[14]을 다양한 방식으로 억압한다. 그리고 그 지배적인 규칙에 따라 보편화하려고 한다. 이는 언어만이 아니라

워... 영남 출신 남성은 사투리를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것".

13) 한국의 연속극에 해당하는 이 표현은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가 문어보다는 구어 중심의 사회라는 표상과 동시에 문맹 정도도 역시 반영한다.

14)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어떤 말의 의미는 그것의 용법이고 게임이다. 용법은 삶의 형식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하나의 동일한 단어가 상이하게 사용되고, 그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말하는 어법이나 어조,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장소와 상대에 상관없이 동일한 어법, 동일한 어조로 동일한 문장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게임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게임,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게임은 어떤 단일한 보편적 원리나 규칙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이를 필연적으로 갖는다(철학적 탐구 1994).

입장이나 이해, 태도, 삶의 방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약자, 소수자들의 입장이나 삶의 방식은 억압되고 짓눌린다.

브라질 국민의 대다수 언중은 다양한 방언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표준어화 된 방송언어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의 괴리감을 느끼기에 때문에 자신들의 국어능력에 대한 강한 콤플렉스를 생성해왔다. 브라질 국민들은 대다수가 자신이 포르투갈어를 올바로 말하고 쓰지 못한다는 자의식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15]. 이러한 언어 편견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를 아래의 신문기사 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 Brasileiro adora dizer que o Brasil não presta, diz Caetano
> (...)Brasileiro adora dizer que o Brasil não presta, que a língua portuguesa é uma porcaria, que todo mundo escreve errado e ninguém reclama Tudo aqui é desrespeitado.( )
> (2008년 5월26일 Folha de São Paulo. 강조는 필자가 표시함)

실제로 브라질에서 외국인의 입장으로 지내다 보면 위에 나온 기사처럼 까에따노(Caetano)같은 비판적 지식인 계층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나라"라는 현지인들의 자조 어린 넋두리를 흔하게 듣게 된다. 그런 비판의 중심 자리에는 항상 국어로 사용 중인 포르투갈어가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A. País precisa ser liderado por quem fala 'bom português',diz FHC.
> (2007년 11월23일, 금요일, Nacional/política, Estadão)

---

15) 임두빈(2005,63-64) '식민지배유산과 언어의 권력성'을 참조.

B. 'FHC tem mais escolaridade,mas sei governar melhor', diz Lula.
(2007년 11월27일자, 화요일, Nacional/política, Estadão)

A는 페르난도 엥리께 카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일명 FHC) 전 대통령이 현직의 룰라대통령을 겨냥해서 언론을 통해 날린 직격탄으로 언어 차별(linguicismo)을 통해 정치적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인 룰라 대통령은 1989,1994,1998년 대선후보로 나설 때마다, 그리고 2002년 대선 당선 후 초기 정부 출범시기부터 성·수 일치를 시키지 않는다는 등 국어인 포르투갈어의 규범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으로 여러 차례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다. 엥리께 전 대통령은 PSDB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 당(PSDB)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문맹률을 낮추게) 그리고 '올바르게'(규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 스스로 교육을 경시하고 등한시 하는 사람이 국가를 통치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는 골자의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룰라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FHC가 가방 끈은 길지만 국가 경영은 내가 더 잘 할 줄 안다"라는 요지의 기사 B를 통해 바로 반격에 나섰다. 기사 A에 대해 동조하는 구독자의 논평을 하나 더 살펴보자.

(...) Brasileiro não sabe falar português, tem preguiça de estudar e de aprender, e pior, tem como referência um presidente semi-analfabeto que nos envergonha em todos os cantos do mundo (...) Lula representa a metade da população brasileira. E é esta metade que atualmente nos destroi, bloqueia nosso desenvolvimento e nos deixa constrangidos ao redor do mundo[16].

16) http://int.estadao.com.br/Comentario/visualizarTodos.do?guid=estad...9

위에 인용한 구독자의 논평 글을 보면 브라질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을 바로 현직 대통령과 같이 포르투갈어를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부분의 국민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여기서 윗글의 필자는 객관적이지 못한 사견을 '우리'라는 일인칭 복수를 이용한 동일시 전략을 통해 소수 계층을 대변하는 '우리'를 브라질이라는 '국가'와 동일시하는 전략을 담론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다. 윗글에서 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난 이유와 그 책임을 개인적인 게으름에 돌리고 있으나[17]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의 역사를 잠시만 돌아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무지한 소리일 뿐이다.

위에서 우리가 위의 FHC나 위 구독자의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부터 따져 묻는 것은, 특히 보수언론들이 역시 흔하게 쓰는 방법이다. 촘스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어용 지식인을 '코미사르'(komissar)[18]라고 불렀다.[19] 코미사르는 비판가로부터 말할 수 있는 '전문가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법을 사용해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희석하려고 든다. 그리고 논점을 '문제 자체'에서 '문제 외적인 것'으로 돌리려고 한다. 이른바 '물타기', 즉 '논점의 이탈'을 꾀하는 것이다.[20] 위의 기사 표제 A, B를 관찰할 때, 엥리께 전 대통령은 논점을 '문제 외적인 것'으

(강조는 필자가 표시함).

17) 지극히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18) 원래는 러시아혁명 후의 소련에서 특정부문에 있어 전권을 행사한 위원을 가리킨다(http://100.naver.com/100.nhn?docid=77734).

19) 존 마허(2005), 하룻밤의 지식여행1-촘스키 , 한학성 옮김, 김영사, p.130.

20) 이 같은 현상은 쇠고기 파동을 시작으로 파급된 대통령 탄핵 주장을 둘러싼 국내 문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2008년 5월6일 고( )박경리 빈소에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남긴 방명록에 대한 논란을 한 예로 수 있다. http://hantoma.hani.co.kr/board/ht_politics/1001001/240166.

로, 그것도 직접적으로 A에서 어떤 특정 국가(정관사 없이 país를 사용)나 룰라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País를 주어로 사용하는 완곡어법을 통해 그의 '전문가적 권리'(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박탈을 담론차원에서 시도한 것이다. 이에 반해 룰라 대통령은 B에서 직접적으로 FHC를 지시하면서 '문제 외적인 것'보다 '문제의 본질'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담론전략의 차이가 흥미롭다.

비록 문법적으로 잘못된 형태를 사용한다 해도 룰라 대통령을 포함해서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브라질 언중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포르투갈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브라질 언중들이 "나는 포르투갈어를 못해"라고 하는 소리는 마치 눈이 멀쩡하게 달려 있는 사람이 앞을 볼 줄 모른다고 하고, 후각이 있는 사람이 숨 쉴 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소리와 같다. 겉보기에 아주 동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언어 문제는 아직 한 번도 국가(민족)적인 문제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한다. 논의된다 해도 그 문제는 교육시스템의 결함이나 개인 노력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주류 담론들만이 브라질 사회에서 수용되고 유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언어가 복합체로써 지닌 두 가지 양면, 즉 동일성과 차이성 중 동일성을 강조하는 언어문제에 대한 이상화(idealisação)만을 불러오고 차이성을 은폐하게 됨을 의미한다.

Ⅳ. 사회통합을 위한 단일언어정책

1. 브라질 내 포르투갈어정책에 대한 최근의 입법 초안들

Schmitz(2002: 88)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언어정책에 대한 토픽들은 언제나 거대 신문언론들과 잡지들을 통해 단지 "문화적인 관심거리" 정도로만 접근되어 왔다고 한다. 아마도 언어정책에 관련되어 가장 최근에 제안된 법안들이 예전보다 덜 '폭력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덜 폭력적이라는 의미는 누구도 '언어문제'로 육체적으로 죽거나 고문을 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 입법 초안들이 내포하고 있는 '폭력적'인 면들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포르투갈어권 국가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어 왔던 '철자법 통일'(Acordo Orthografico)안과 최근에 논란을 일으켰던 Projeto de Lei No 1676 de 1999, 즉 일명 'Lei do Estrangeirismo'(외래어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1990년부터 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CPLP)간에 추진되어 온 '철자법 통일안'에서 실제로 철자법 개정 문제는 전적으로 포르투갈과 브라질 양국가간의 동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브라질을 제외한 동티모르를 비롯한 아프리카 포르투갈어권국가(PALOP)들이 모두 포르투갈식 철자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회는 1995년에 이미 철자법 통일안에 대한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우선적으로 철자법 통일안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철자법 통일문제는 엄밀한 의미로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철자법의 변화가 언어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브라질과 포르투갈이 철자법 동의에 대한 상호간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두 개의 큰 축에서 사용되는 구어(língua falada)가 내포하고 있는 차이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전술한대로 철자법에 얽힌 문제는 단순히 언어학적인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인 문제이자 법정질서에 관련된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철자법은 언어학적 연구대상이라기 보다는 브라질, 포르투갈 양쪽 국가에서 집행되는 법의 대상이다.

각국에서 이행되는 철자법에 따라 법질서가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것이다.

사실상 포르투갈과 브라질이 채택하고 있는 철자법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차원에서 반목되는 부분들을 실용적으로 해결해 나갈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그 실례로 이번 2008년 5월16일 포르투갈의회가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굽히고 포르투갈어사용국가(CPLP) 간 철자법 통일안을 승인했다. 포르투갈에서는 향후 6년 안에 새 통일안에 맞춰 사회전반에 걸쳐 철자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일찌감치 1995년에 철자법 통일안을 승인했던 브라질은 2010년에는 이미 공립학교 교과서에 새 철자법의 적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각 출판사들은 내년부터 새 철자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다.[21]

한편, 가장 최근에 브라질에서 일어난 언어정책 관련 사안은 하원의원 '알도 히벨로'(Aldo Rebelo,브라질 공산당-상파울루)이 1999년에 제안한 Projetode Lei Numero1676으로 아직 상원과 하원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다. 이 법안은 브라질에서 외래어의 사용을 법적인 제재를 통해 금지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Leido Estrangeirismo"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Faraco2001).'알도' 의원의 주장은 외국어(특히, 영어)로부터 포르투갈어를 보호해야 하며 브라질 전역에 국어(포르투갈어)의 사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알도 의원의 주장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22] 하지만 이런 언어적 순혈주의가 규범론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하지만 항상 법적

---

21) 2008년5월19일자 O Estadode São Paulo - Jair Rattner,AlexandreGonçalves "Portugal aceita unificaçãoortográfica"

22) 프랑스는 Toubonlaw(1994cf. Judge 2002),이탈리아는 파시스트 시기 동안 알도 의원이 제안한 것과 같은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다.

인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명백하게 “유해한 미국영어의 침입”에 대항하여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하층민들, 즉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장소에서 포르투갈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포르투갈어 사용을 의무화시킨다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Zilles 2002, 146－147apud Cagliari).

사실상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동질적이고 심미적인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가 그 자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모든 층위(계층, 계급)에 있어 동등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처럼 공통 언어를 매개로 한 모든 사회계층에 동등한 언어현실의 구현은 이상적이자 하나의 신화에 불과할 것이다.

언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외국어로부터 단어들을 차용해서 사용하려는 것을 하나의 “욕구”로 본다면, “위협”은 언어차용에서 오는 혐오감을 나타내는 단어가 될 것이다. 통제권을 위협하는 침입에 대한 공포, 언어순혈주의 지향, 통일된 민족성에 대한 갈망,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수성과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Garcez& Zilles 2002, 34 apud Cagliari).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알도 의원의 언어정책입안은 그 자체로 정치계와 언론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미디어와 학자들은 강한 비판을 내렸고 그 결과, 이른바 ‘알도(Aldo)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구석자리에 계류되어 있는 신세에 처해 있다. 대신에 상원의원 ‘아미르 란도(Amir Lando)’에 의해 수정, 대체된 법안이 소개되었다. 이 법안은 ABRALIN(브라질 언어학회)과 ALAB(브라질 응용언어학회)의 자문을 거친 수정판이었다(ibid.).

알도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바탕으로 수정된 그 법안은 2003년 5월 28일 제안되었다. 비록 수정법안도 원안처럼 여전히 공공문서에 있어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디어, 상업광고와 포스터에 사용할 문구와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용어들의 번역을 위한 심의회의 구성 등, 이전보다 덜 경직되면서 발전적인 의도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포르투갈어 교사양성은 물론이고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 교습방법론 혁신을 위한 혁신론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브라질과 다른 포르투갈어 사용국가들 간의 관계유지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당 법안의 바탕에는 외래어를 배척하는 노선을 담고 있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침입한 유해한 말로부터 민족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언어를 권력의 언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엘리트에 의해 규정된 규범문어(português padrão)를 기준으로 정의내리고 이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그들의 말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나는 다양한 정체성을 표시하는 브라질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차이들(변이체들)은 그야말로 단순하게 거세되어 버리는 것이다.

"순수해야 할 포르투갈어"에 외국어가 섞이는 것을 일종의 '스캔들'로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그들이 대중적으로 통용되고 지역성이 가미되며 비형식적인 포르투갈어(português não padrão)의 사용도 동일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Schmitz 2002,101).두 가지 방식 즉, 외적 요인에 대한 반발과 내적 요인에 대해 나타나는 언어적 편견이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순혈주의에 대한 기원은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어가 아주 결속력이 강한 단일성을 갖고 있고(Bagno2002a,15) 국가와 그의 공식어로써의 포르투갈어 사이의 연합(Silvia& Moura 2002, 11)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신화에서 비롯된다. 한편으로는 다언어주의(multilinguismo)에 대한 부정[23]과 또 한편으로는 "이상화된 포르투갈어"에 부합하지 않는 말이나 말하는 방식에 대한 배제는 언어적 편견이 팽배해 있는 사회적 현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이다.

2. 언어편견과사회적 차별

우리는 각자 구사하는 특정한 언어의 화자로써 그 언어가 지닌 모든 변이형들을 구별하는 법을 체득한다. 일견해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언어만(동일성)을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는 한 언어가 지닌 모든 변이형들(차이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청자이기도 하다. 모든 화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다중언어사용자'(poliglota)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르투갈어를 안다는 것은 단지 학교로부터 배운 언어에 배타적으로 내재된 규칙을 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는 브라질에 존재하는 모든 변이형들의 모든 형태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파울리스타(paulista) 말과 카리오카(Carioca)말을 구분할 줄 할고 가우샤(Gaúcha)말과 북동부와 북부 사투리를 구분할 줄 안다. 모국어 화자는 역시 언어적 사용에 내재되어 있는 차이점들을 안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들,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언어 표현 등, 한 언어를 안다는 것은 해당 언어가 지닌 여러 변이형들을 이해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변이형들은 흉하지도 아름답지도, 옳지도 틀리지도, 좋기도 나쁘지도, 우

23) 한 사회나 개인이 두 언어르 사용하는 상태를 라틴어 기원으로 'biliguismo' 그리스 어원으로는 'diaglosia'라고 한다. 사회언어학자들의 구분에 따르면 'biliguismo'은 한 시회에서 사용된 두 개의 언어가 사회적 기능에서 차별이 없을 경우, 'diaglosia'는 사용되는 두 언어가 사회적 기능에서 차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우리는 'multilinguismo'를 'biliguismo'의 연장선으로 이해한다.

아하지도 천박하지도 않다. 다만 다를 뿐이다(Fiorin 2002, 114).

현대 언어학자들은 언어들을 지역적, 사회적, 상황적 그리고 시간적 변이형들의 집합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 사회언어학은 상호작용의 특정 상황에 따라 언어 변이형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 어떤 사회에서 쓰이는 어떤 언어라도 문법학자들이 정한 규범에 의해 규정되어질 수는 없다. 그 대신에 언어발달은 전술했던 바와 같이 언제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 문화적 경험, 정치적 노선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흘러가는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기초해서 초기에는 언어학자들은 규범주의가 자아낸 사회적, 언어적인 편견이 언어연구의 발전과 더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규범주의자적 입장을 선(先)과학적인 지식으로 분류했었다(Silvia & Moura 2002, 9-10 apud Cagliari 2003). 그러나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그 편견들이 브라질에서 사라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언어적 편견이 브라질 언어학자들 간에 새로이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Bagno(2002a,15)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가 '통합체'로 성격 지워진다는 생각은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편견을 생성해 내는 신화들 중에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언어를 확고부동한 통합체로 인식하는 그러한 믿음은 교육에 있어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 브라질 교육시스템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고, 즉 연령, 지리적 위치, 사회경제적 상황과 교육수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억9천만에 달하는 브라질 인구 모두가 사용하는 공통언어로서 하나의 언어패턴만을 강요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드러나는 언어적 편견은 북동부이든 남동부 지역이든 간에 지리적 위치와 별도로 가난한 계층들이 사용하는 말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사회적으로 드

러나는 심각한 언어적 차별들은 본 논문의 III장에서 보았듯이 브라질 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비표준어 사용자들과 표준어로 상정되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언어적 심연이 실체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브라질의 가난한 계층이 사용하는 포르투갈어의 다양한 변이형들에 대해 언어적 편견과 차별이 작용하는 가장 심각한 부분은 '빈곤'이 인지적 그리고 정신적 결함과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믿는 부분이다. 이런 근거 없는 비과학적인 시각 아래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온전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24] 그리고 이러한 언어사용에 대한 평가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로까지 확장이 된다. 그래서 비표준어로 말하는, 다시 말해, 규범에 따라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무능한 개인으로까지 그 평가가 확장된다.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실례를 III장의 신문 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었다. 이런 관점에서 고종석(2007)의 표현대로 표준어주의는 '구별 짓기'가 작동하는 "국민국가 내부의 식민주의이자 제국주의다".[25]인 셈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한국이나 브라질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도 Baugh(1999)가 AAVE(African-American Vernacular English)에 관해 표준영어 구사자들이 비표준 영어 구사자들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증명해 보였다. 한 언어에 속하는 모든 변이형들이 동등하게 의사소통에 있어 유효한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급스럽든 아니든 간에 교육시스템이라는 제도에 의해 비표준어들이 배제되고 차별되어야 할 과학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변이형

24) "우리의 생각이 언어적 상징으로 완벽하거나 심지어는 적합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견해는 바보스러운 일이다"(알프레드 노스 화이트 헤드); "인간의 지혜는 어떤 한 가지 언어에 담겨 있지 않으며 한 가지 언어가 모든 인간의 이해 형태와 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에즈라 파운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p.193.

25) 한국일보 2006/03/14<말의 풍경> 2. 표준어의 폭력

들 사이의 위계는 그 내재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 변이형을 사용하는 집단의 사회·문화적 힘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한 사회에서 일정한 가치관을 표상하는 언어자원은 의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고 그 배분을 통한 '차이 지우기'와 '구별 짓기'가 제도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 되고 있다. 결국은 언어자원 자체, 즉 모든 자연언어들 자체에 위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용집단이 보유한 사회·문화적 힘이 언어의 위계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위한 기능적인 목적 아래 한 특정 공동체 변이형을 선택하는 것은, 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게 평가되는 변이형일 경우, 그 사용자들을 그들만의 세계로 감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들이 세상을 보다 넓게 보려는 시각과 '차이 지우기'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승격시키려는 노력을 차단하는 기제로 작동하면서 그들을 끝없이 지속되는 빈곤의 수레바퀴 속에 가두게 된다는 의미이다. 교육은 아직까지 사회적 지위를 승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시스템은 모순의 쳇바퀴 속에 빠지기 쉽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개인의 정체성 확인과 사회적 위치를 찾는 기제이므로 각 개인이 말하는 변이형들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표준어로 간주된 언어변이형의 사용과 그 확산을 장려할 수밖에 없다. 언어가 기본적으로 소통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처럼 표준어의 존재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화하는 변이형들에 대한 비차별적인 교육적 접근은 그 방언들의 사용이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지도록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많은 변이체들의 대등한 경쟁은 그 원심력으로 한 언어를 이완시켜 마침내 소통 불능 상태로 분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고종석 2007, 24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을 드러내는 언어의 사용 자체가 불평등과 불의를 고착시키

고 강화한다는 사실을 사회·교육적 차원에서의 공유하고 언어가 반영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불공정함을 바로 잡는 노력이 항상적으로 필요하다(ibid.).

Ⅴ. 나오기

브라질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인종적 혼합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그 이미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브라질 내부에 실체하는 인종적 사회적 편견들을 은폐하는 인종 민주주의적 환상에 젖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브라질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표현 방식으로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이런 이미지는 브라질을 항상 다인종적 파라다이스, 동일한 지리적 공간에 각기 다른 인종들이 조화를 이루며 삶을 영위하고, 내전이나 민족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려 하는 브라질리아니스트(Brazilianist들의 시각에서 항상 묻어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브라질이라는 공간을 '장소'로 보지 않고 '현장'으로 보고, 즉 외부를 계속해서 외부에 머물게 하고 중심에서 주변을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데서 오는 신기루 현상인 셈이다.

그러나 언어현실은 인종적 조화의 기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식민 시대부터 포르투갈어를 언어통합의 기준으로 설정해왔다. 이런 목표아래 브라질 사람들의 삶속에 실체하던 다양성과의 조화로운 공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공식적인 담화에서 브라질의 언어적 다양성의 존재여부는 항상 부정되고 회피되어 왔다. 문제는 브라질 국민의 대부분이 자기 나라가 안고 있는 언어적 현실에 무관심한 것이다. 브라질의 일반대중들은 자국에 얼마 정도의 원주민어가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어처구니없게도 원주민어도 포르투갈어와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사람, 인디오어를 사용하는 원주민이라는 이분법의 공식이 다시금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 제도권의 교육시스템이 미친 영향을 적다고 볼 수 없다. 형식적으로 '인디오의 날'을 제정하여 자국의 문화형성의 한 축을 이루는 존재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벌이지만 이벤트성에 그치며 사회적 실천으로 이끌기 보다는 박물관식 박제화로 환원시키는 상황을 연출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고 국가내부에 존재하는 식민주의 형태로써 브라질 사회는 포르투갈어를 말하지만 '올바른' 어법을 구사하는 유럽 포르투갈어에 기반한 문어(língua escrita)를 규범언어(norma-padrão)로 인식하고 실제 언어사용(특히, 문어)에 있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틀리고 잘못된 언어라는 언어식민주의 사관에 매몰되어 나타나는 자격지심을 은연중에 지니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언어편견과 선입견이 담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불식시키고 브라질이 처해 있는 언어적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면서 쉬우면서도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만한 해결책은 당장 마련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외국의 언어와 사회현실을 논하는 우리의 임무와 역할은 실제 현실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다. 다만 "언어정책과 언어 교육은 언어들의 생명력, 다양성과 안정성을 진척, 장려,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써 기능해야 한다"라는 기대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Hornberger2008).

전술했다시피 전문가들의 소견에 따르면 브라질의 원주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들이 공존하는 경우와 이민자 공동체 경우에 '디아글로시아'(diaglosia)를 바탕으로 기능하는 이중언어학교가 현실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언어들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로 판

단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한 점은 다양성 확보와 유지 차원아래 소수집단 언어 보호를 위한 논의로 이중언어학교의 증설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표준 포르투갈어(português-não-padrão)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의 공유였다. 글로상(E. Glissant)이 언급했듯이, 개인이나 사회의 언어가 모노링구알이 아닌 멀티링구얼일 때 그 아이덴티티는 단근적이 아니라 근경적 아이덴티티가 된다(미우라 노부타가·가스야 게이스케 2005,13). 다언어주의는 단순히 복수언어의 병존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 그 자체의 성립의 복수성과 잡종성으로 생각하는 길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크레올화의 산물인 것이다(ibid.). 고종석의 표현을 빌자면 모든 언어는 '감염된 언어'인 셈이다. 다언어주의의 관점에는 들뢰즈가 말하는 '스스로의 모어 안에서조차 자신을 이방인으로 느끼는 이방인 감각'이 없으면 안된다. 우리는, 자신의 언어 안에서도 '멀티링구얼'인 것이다. '언어 간의 복수성'으로부터 '한 언어 내부의 복수성'으로 균질하고 고정적인 폐쇄계로서의 랑그에서 자신 안에 이질적인 요소를 껴안고 타자를 향하여 열린 동적인 개방계로서의 랑그로 향해야 할 것이다(ibid.)

끝으로 향후에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언어정책의 공식에 대한 키워드는 '존중'을 중심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긴 논의를 둘러와 다소 맥 빠진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알고만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천양지차이다. 국가와 민족 단위를 떠나 다른 언어 화자들에 대한 존중, 한 언어 안에 존재하는 다른 변이형 화자들에 대한 존중, 언어에 묻어 있는 타자의 정체성 존중, 언어생활에 대한 이러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언어정책과 사회의 인식은 사회통합과 계층 간 괴리 타파에 있어 지금까지 브라질 사회나 우리사회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감히 상상해 본다.

참고문헌

고종석(2007), 말들의 풍경 , 개마고원.

미우라 노부타가·가스야 게이스케(2005), 언어제국주의란 무엇인가 , 돌베개.

비트겐슈타인(1994), 철학적 탐구 , 이영철 옮김, 책세상.

변명섭(2003), 언어정책과 언어법제화의 양상 , 법과 정책 제9호, pp.203 -230.

사모바&포터(200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북스.

이동연(1997),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 문화과학사.

이병혁(1986), 언어사회학 서설 - 이데올로기와 언어 , 까치.

양명희(2005),「소수자 문제」, 국어연감, 국립국어원.

임두빈(2006),「브라질의 언어정체성」, 이베로아메리카 제8권1호, pp.47-72.

_____(2007),「브라질 포르투갈어의 이종성과 브라질 사회·역사성과의 관계」, 중남미연구 제26권 1호, pp.209-263.

윤인진(2002),"소수자에 대한 사회인식과 거리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노동자,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in 사회운동과 사회변혁 , 서울: 나남출판사, pp.593-645.

조이환(2008), 브라질 인디오 문화에 관한 연구 , 중남미연구, 제26권 2호, pp.183-206.

조지오웰(2003), 1984 , 정회성 옮김, 민음사.

존 마허(2005), 하룻밤의 지식여행1-촘스키 , 한학성 옮김, 김영사.

정시호(2000), 21세기의 세계언어전쟁 ,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조선경(2006),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문제와 대응 방안 , 새생활국어 제

16권.
칼베(2001), 언어전쟁 , 김윤경·김영서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핀커(2003), 언어본능 (상), 김한영, 문미선, 신효식 옮김, 그린비.
미셸 푸코(1986), 말과 사물 , 민음사.
Alba, Rechard(1999), "immigration and the American Realities of Assimilation and Multiculturalism," Sociological Forum, Vol.14, No.1, pp.3~25.
Bagno, Marcos (2002a), Preconceito lingüístico — o que é, como se faz, 16th ed, São Paulo: Loyola.
Bagno, Marcos (2002b), "Cassandra, Fênix e outros mitos" in Carlos Alberto Faraco (ed.), Estrangeirismos — guerra sem tomo da língua, 2nd ed (pp.49—83), São Paulo: Parábola.
Bessa Freire, José (1983), "Da 'fala boa' ao português na Amazônia brasileira", (From 'good speech' to Portuguese in Brazilian Amazonia.) Amerindia, No.8 (quoted in Oliveira, 2002).
Baugh, John (1999), Out of the mouths of slaves: African—American language and educational malpractic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Cameron, D(1990), "Demythologizing sociolinguistics: why language does not reflect society," in Joseph, J. E. & Taylor, T. (ed.), Ideologies af Language, London: Routledge.
Cagliari, G. Massini(2003), "Language Policy in Brazil", Language Policy, No. 3: pp.3—23.
Crystal(1997),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Deutsch, Karl W. (1978),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Dias, L. F (1996), Os Sentidos do Idioma Nacional, Campinas: Pontes.

Dworkin A. G. and R. J. Dworkin (1999), The Minority Report: An introduction to Racial, Ethnic, and Gender Relation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Esman, Milton J. (1992), "The State and Language Poli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3 (No. 4), pp. 381 396.

Faraco. Carlos Alberto (2002), "Guerra sem torno da língua questões de política" in Carlos Alberto Faraco (ed.) Estrangeirismos guerra sem torno da língua, 2nd ed, São Paulo: Parábola, pp. 37 47.

Gurocz, Pedro M. & Zilles, Ana Maria S. (2002), "Estrangeirismos desejos e ameaças" in Carlos Alberto Faraco (ed.), Estrangeirismos _ guerras em torno da língua, 2nd edition, São Paulo: Parábola, pp. 15 36.

Hinata Naemia (1995), Além das Palavras, Tokyo: JICEF BOOKS.

Hornberger, N. (2008), Can Schools Save Indigenous Languages?: Policy and Practice on Four Continents, Palgrave Macmillan.

Judge, Anne (2002), "France: One state, One nation, one language?" in Stephen Barbour & Cathie Carmichael (eds), Language and nationalism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44 82.

Kahn, Marina (1994), "Educação indígena' versus 'educação para índios': sim, a discussão deve continuar," Aberto No. 63, pp. 137 144.

Oliveira, Gilvan Müller de (2002), "Brasileiro fala português: monolingüismo e preconceito lingüístico" in Fábio Lopes da Silva & Heronides M. de Melo Moura (Eds), O direito à fala a questão do preconceito lingüístico, 2nd, revised edition, Florianópolis Insular, pp. 83 92.

Rodrigues, A. D. (1999), "Macro Jê" in R.M.W. Dixon & Alexandra

Aikhenvald(eds), The Amazonian languages,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4-206.

_____(1998), "Línguas Indígenas, descobertas e perdas", Parte II, Porantim(Dec), 5.

Rodrigues, J. H. (1987), "A História da Língua Portuguesa no Brasil Colonial," Humanidades 1(4), Brasília: UnB.

Rustow, D. A. (1967), A World of Nations: Problems of Political Modernization, The Brockings Institute.

Schmitz, John Robert (2002). "O Projeto de Lei no. 1676/99 na imprensa de São Paulo" in Carlos Alberto Faraco(ed), Estrangeirismos - guerras em torno da língua, 2nd ed, São Paulo: Parábola, pp.85-106.

Wiley, T. and M. Lukes (1996), "English-Only and standard English ideologies," the U.S. TESOL Quarterly 30, pp.511-535.

The U.S. English Foundation.(2000). Washington.D.C. Website: http://us-english.org/foundntion/countries.asp(2008/02/17).

http://int.estadao.com.br/Comentario/visualizarTodos.do?guid=estad... 9(2008/05/20)

http://100.naver.com/100.nhn?docid=151720(2008/03/24)

윤인진,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책": http://puzzlet.org/archive/korean.go.kr/nkview/nklife/2006_1/16_6.html(2007/09/30).

비트게뉴타인의 수리철학의 연구-규칙 따르기 개념을 중심으로: http://cafe.naver.com/hupanzee.cafe?iframe_url=/ArticleRead.nhn%

3Farticleid=778(2008/04/17).

권력의 표준어: 경상도:
http://h21.hani.co.kr/section-021005000/2008/05/02100500020080
5010708004.html(2008/05/23).

이민자녀와 그 교육의 단상에 관하여:
http://blog.hani.co.kr/blog_lib/contents_view.html?BLOG_ID=
myoungsb&log_no=32(2008/02/14).

브라질 언어정책 연구발전학회 : http://www.ipol.org.br(2008/05/11).
브라질 인디오보호청 : http://www.funai.gov.br/indios/conteudo.htm
(2008/01/07).
한국일보, 2006/03/14

Folha de São Paulo, 2008/05/26
Estadão,2008/05/19
Estadão/Nacional/política 2007/11/23
Estadão/Nacional/política 2007/11/27

▌논문투고일자 2008년 5월 9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6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6일